



지난달 27일 낮 12시경 선동우 이연옥 씨 가족이 집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현이를 보고 있다.

“아이를 집에서 낳았다고?”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의 선동우(34) 이연옥(35) 씨 부부의 집은 아기 탄생 준비로 분주하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부인 이 씨의 진통은 고비에 다다른 상태. 아들 승혁(8) 군과 딸 다현(6) 양도 곧 태어날 동생 맞이에 설레고 있다. 10년 경력의 간호사 출신인 이 씨는 두 아이를 병원에서 낳았지만 이번에는 조산사의 도움으로 가정 분만을 하려는 참이다.



“임신은 병이 아닌데 병원에 가면 완전히 환자가 되잖아요. 아무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기도 금방 데려가 버리고, 이번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놓고 싶어요.”

아기가 잘 나오라고 쪼그려 앉아 심호흡을 하는 이 씨 옆에서 가족들은 평화롭게 아기를 기다린다. 아이들은 태어날 동생을 위해 편지를 써 놓았다. 승혁이는 편지에 ‘아기야 안녕? 난 오빠야. 배 속에서 뭐 했니?’라고 썼다. 11시 30분, 어두운 곳에 있다 나오는 아기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어둡게 해 놓은 따뜻한 방 안에 이 씨는 남편에게 기대고 반쯤 누웠다.

11시 43분, 이 씨는 “이제 별이 보이려고 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조산사 김옥진(45·김옥진 조산원장) 씨가 “자길게 힘줘요. 꿩!” 하고 산모를 독려한다. 아빠는 조용히 앉아 있는 딸 다현이에게 “너도 이렇게 나왔어”라며 안심시키지만 긴장

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낮 12시가 되자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던 이 씨가 신음 소리를 냈다. 다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아기의 새까만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 이제부터 힘 확 주면 안 돼요. 천천히, 움직.”(김옥진 씨) 6분 뒤 머리가 나왔나 싶더니 분홍빛의 아기는 너무도 부드럽게 스르륵 세상에 나왔다. 예쁜 딸이다. 12시 7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배 위에 텁줄을 자르지 않은 채로 눕혀졌다. 엄마의 첫 마디는 “아, 좋아라.”

아무도 아기를 거꾸로 들거나 때리지 않았지만 아기는 스스로 호흡을 시작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텁줄의 박동이 멈춘 뒤 아빠가 텁줄을 잘랐고 아기는 곧 엄마 젖을 빨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승혁이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친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들어왔다. “왜 아(아이)를 집에서 낳았노?”

한국에서는 1년에 약 5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며 98% 이상이 병원에서 태어난다. 병원 출산의 37.7%(2004년 기준)는 제왕절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정 분만을 고집하는 1% 안팎의 산모들이 있다. 분만에 관한 한 한국 사회의 ‘소수자’인 이들은 대부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고학력자다.

친척들도 대부분 ‘제정신이냐’며 차기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시가나 친정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이 ‘출산=병원’의 공식을 깨고 가정 분만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사에서 가정 분만은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다는 진단 아래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이뤄지는 자연분만을 뜻합니다.)

▶▶2면에 계속

글=채지영 기자 yourcat@donga.com 사진=변영욱 기자 cut@donga.com